

# Jean 소재를 이용한 여고생 교복디자인 연구

조은정\* · 정삼호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석사졸업\*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과거 우리나라 교복의 형태는 획일적이고 개성과는 상관없는 일률적인 교복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의생활도 더불어 세분화되고 그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으며, 교복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의 획일적인 교복 형태를 지양하고 패션화된 디자인과 소재를 선호하면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교복을 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착용되고 있는 교복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문을 통해 여고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와 선호하는 진을 이용한 교복 디자인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고생들의 특성과 패션의식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즉,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활동성과 심미성을 갖춘 교복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착용되고 있는 교복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여고생들의 춘·추·동복 아이템으로는 재킷, 조끼, 블라우스, 스커트의 구성이 많았으며 색상은 검색과 회색이 주를 이루었다. 재킷은 주로 테일러드 칼라가 달린 싱글2버튼이 가장 많이 보여졌으며 조끼는 칼라가 없는 V넥라인의 더블 여밈 스타일이 많이 보여졌다. 블라우스는 흰색의 셔츠칼라에 퍼프소매가 가장 많이 선보여졌으며 스커트는 주로 A라인 실루엣의 주름치마 스타일이 많이 보여졌다. 교복의 무늬에 있어서 재킷과 블라우스는 민무늬를 많이 사용한 반면 조끼와 스커트는 체크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교복의 소재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주로 혼방을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여고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교복의 구성요소 전체에 관한 선호도에 있어서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 중에서 심미성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착용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외출시의 교복 착용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외의 장소에서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비착용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활동이 불편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진을 소재로 교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신세대 감각에 맞기 때문이었다. 진을 가지고 교복을 만들 경우 재킷은 스텐 칼라 재킷에 허리선길이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커트 디자인은 플레어 스커트에 무릎선 길이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재킷과 마찬가지로 여고생들이 짧은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블라우스 디자인으로는 셔츠칼라에 셔츠소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끼 디자인에 있어서는 V넥라인의 니트 조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고생들은 현재의 교복에 대해 대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행 교복의 개선점으로 디자인을 개선해야 하며 교복 디자인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 역시 심미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더 강조했던 과거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여고생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 여고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복을 만들기 위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진소재를 이용하여 교복 본래의 기능인 상징성,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 뿐만 아니라 개성과 신세대 감각을 표현 할 수 있도록 교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